

大-中企 임금격차 해소위해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보단 '성과공유제'

청년고용 문제 과제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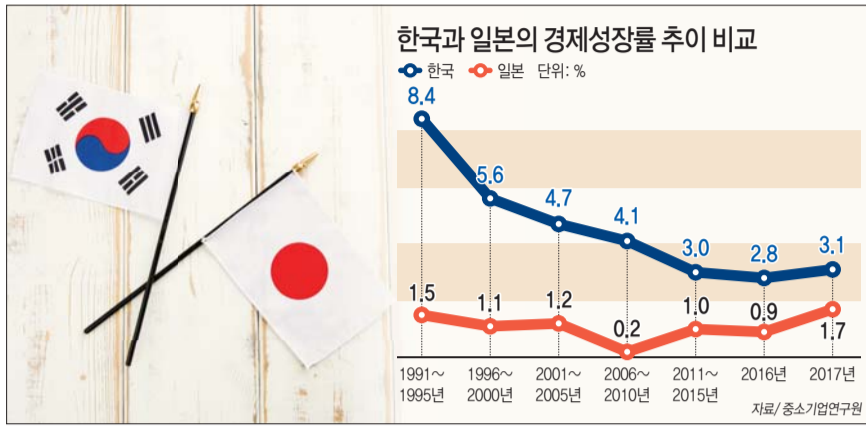
내일채움공제 등 효과 의문
생애보상제도 도입 '효과적'
고학력자들 일자리 확보돼야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신규고용창출효과가 의문시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채용보조금을 주기보다는 기업들이 성과공유제 등 생애보상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 기대수익률보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대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 이전 취업 빙하기를 경험한 이 나라 일본보다 현재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뒤떨어지며 사상 최악의 '한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8일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



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연구 결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고용 관련 각종 지표가 일본보다 부진한 것은 청년 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공급요인),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시장 유연성(수요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청년 인구의 감소로 청년 실업 문제는 개선될 수 있지만 다른 지표들은 그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위원은 "청년 인구가 줄어도

고학력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자영업자나 유휴인력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인력부족 현상은 당분간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취업시장과 고용시장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과공유제도, 우리사주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개발, 중소기업 경력자 창업지원 등 생애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고학력 청년인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선취업·후진학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연구위원은 "에코붐 청년세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다는 인력으로 기업가정신을 접목하면 우수한 창업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인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정책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창업훈련을 대폭 강화해 실패확률을 줄이고 창업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자가 아닌 투자형태의 창업지원, 창업실패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공공부문 채용자의 상당비율을 창업경험자에 할당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말했다.

또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시대에 청년고용을 확보하려면 고용과 임금을 함께 잡으려는 경직된 정책 대신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에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이 더 실효성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점검

정부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의 사료제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료제조를 위한 남은음식물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해외로부터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20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45개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192개소),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개소) 등을 점검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해양환경공단

과견직 30명 정규직 전환

해양환경공단이 과견용역 노동자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단 과견용역 노동자 3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청소 및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 정년을 만65세로 상향해 고령층의 일자리 기회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했다.

박승기 이사장은 "새롭게 공단의 구성원이 된 직원분들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 및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인천항서도 '여왕 붉은불개미' 발견... 방역 총력전

농식품부, 발견지점 주변 소독 추가 정밀조사·역학조사 나서

최근 부산과 평택항에서 발견됐던 붉은불개미가 인천항에서도 발견됐다. 특히 인천항에서는 처음으로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가 발견돼 검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여왕개미 한 마리를 포함한 붉은불개미 수백 마리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환경부·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펼친 결과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 최초 발견지점에서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붉은불개미 유입 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 결과를 볼 때 올해 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균체 크기가 작고 번식이 가능한 수개미와 공중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 단계의 균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붉은불개미가 최근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자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까지 발견되면서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을 정밀히 조사하고, 주변에 예방 트랩을 11개에서 766개로 대폭 늘렸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붉은불개미가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오는 컨테이너를 들어오는 항만 12곳에 컨테이너 점검인력 122명을 투입해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며 "인천항에는 임시로 점검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견지점 주변 200m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반출 전 철저히 소독하고, 야적장에 대해서 추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입 원인, 시기, 발견지점 사이의 연계성 등을 밝혀내고자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한 역학조사도 한다.

이번 붉은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이래

여섯 번째이며,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나온 사례로는 네 번째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붉은불개미의 독에는 알칼로이드인 '솔레놉신'과 벌이 가진 펩타이드 독성분인 '포스포리파제'나 '하이알루로니다제' 등이 포함돼 있다. 쏘이면 통증에 이어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세균에 감염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오려려 인체보다는 가축과 농작물 피해 때문에 미국 등 각국의 당국이 신속한 검역과 방제에 나서는 실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다만 독성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美·中 무역전쟁 우려에 국제 곡물가격 하락세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176.1p보다 2.4포인트 하락한 173.7p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식량 가격지수는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며 "국제 무역관계 긴장으로 대부분 시장이 최근 약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곡물은 전월보다 3.7% 떨어진 166.2p를 기록했다. 쌀은 가격이 올랐고, 옥수수과 밀은 급격하게 가격이 내려갔다. 반면, 공급량 부족으로 자포니카 쌀과 향미 가격은 올라가 국제 쌀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최신용 기자

'금산 전통인삼농업' 세계중요 농업유산에 오르다

우리나라 전통인삼농업이 인삼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과학자문그룹(SAG) 최종심의회에서 ▲산자락의 순환식 이동 농법을 통한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햇빛의 방향과 바람의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밭아시간 단축을 위한 전통적 개갑(開甲)처리 등 전통인삼농업기술의 문화·사회적 가치 등이 인정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FAO는 2002년부터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



우리나라 전통인삼농업인 금산 인삼농법으로 파종을 하고 있는 모습. /농식품부

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GIAHS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20개국의 50여개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제주 발담농업(제2호 국가중요농업유산)', 2017년에 '하동 전통 차농업(제6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부

9월6일 균형발전 박람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치의 장이 오는 9월 대전에서 열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17개 시·도가 참가하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및 정책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는 2004년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지역 박람회다.

올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부 정책 중심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지역혁신활동가 등 시민사회 참여와 중앙-지방정부의 협치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